

선구자이며 주님의 세례자이신 성 요한 탄생 축일

(6월 24일 축일 / 7월 5일 강론)

선구자이자 주님의 세례자이신 성 요한은 정교회에서 높은 명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마태오 11:11)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마태오 11:10 참조)

성 루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첫 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해 놀랄 만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루가 1:5-25, 57-80) 가브리엘 대천사는 테오토코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즈가리야 사제에게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루가 1:13)

부부라면 당연히 아이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즈가리야 사제도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께서 모든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 사도 바울로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성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애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청드리면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 중에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더욱더 풍부하게 그 간구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라면 과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마태오 7:7-11)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했는데 왜 그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혹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마태오 19:26)

주님의 세례자이며 선구자이신 성 요한을 공경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대화를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시기를 요한 성인에게 간구합니다. 아멘